

# 100년 전 합성 되새기고 미래 새 희망 연다

100년 전 독립을 외쳤던 선조들의 합성을 되새기고 희망찬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전주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또한,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독립영웅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도 진행된다.

전주시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주313위원회는 2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위원회 출범과 전주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시와 전주313위원회는 전주지역 3·1운동이 과거 신학교와 기전학교 학생, 개신교와 천도교 신자들을 주축으로 만세운동이 남부시장을 중심

## 전주시, 종교계·시민사회단체 등과 '313위원회' 구성

### 3·1운동 기념행사 열기로... 일제잔재 청산 계획도 발표

으로 일어났다는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겨 오는 3월 9일 풍남문과 경기전 광장 일원에서 전주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3월 9일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가량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3·1정신을 계승해 미래 100년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자는 뜻에서 '독립의 합성'에서 평화와 통일로 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며 신학교에서 출발하는 3·13만세처럼 퍼레이드로 행사의 문을 연다.

각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참여자 등 3000여명의 대규모 퍼레이드단은 충경로를 지나 관동로 사거리에서 플라시도 만세재현 퍼포먼스를 펼치고 팔달로를 거쳐 기념식 메인 행사장인 풍남문까지 50분간 1.7km구간을 함께 행진하게 된다.

풍남문 특설무대에서는 전주지역 3·1운동 독립영웅들의 이야기를 관소리로 연출한 시립국악단의 공연과 가요에 13인의 광복에 대한 염원을 담은 창작 무용극 등 특별공연이 펼쳐진다.

이외에도, 전주 평화선포식이 진행되고 각 종교계와 어린이, 시민 등이 참여하는 300여명 규모의 시민합창단 공연과 만세삼창도 진행되며 시민참여 버스킹, 태극기꽃병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 일제잔재 청산 추진계획도 밝혔다.

일례로, 시는 전주지역 3·1운동에 공헌이 있으나 아직 추서되지 않은 미 추서자 34명을 발굴해 국가보훈처에 추서신청, 현재 공적심사중에 있다.

또한, 전주 3·1운동이 이름 없는 민중의 참여가 많았다는 특징을 고려해 무명기림비 조성사업에 국비 1억 원을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대표적인 일제 잔재물인 다고교 석등을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일제감정기 일본회사인 동산농산 공원과 만세삼창도 진행되며 시민참여 버스킹, 태극기꽃병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 일제잔재 청산 추진계획도 밝혔다.

일례로, 시는 전주지역 3·1운동에 공헌이 있으나 아직 추서되지 않은 미 추서자 34명을 발굴해 국가보훈처에 추서신청, 현재 공적심사중에 있다. 또한, 전주 3·1운동이 이름 없는 민중의 참여가 많았다는 특징을 고려해 무명기림비 조성사업에 국비 1억 원을 확보, 사업을 추진한다.

## 시내버스 친절기사 원탁회의

전주시가 시내버스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친절기사로 선정된 버스 운전원들과 만났다.

시는 26일 한국전문문화재단에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교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버스정책 추진을 위해 '시내버스 친절기사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50명으로부터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견과 버스 운행시 예의주한 수렴해 근본적인 시내버스 불친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시민들이 말하는 시내버스 불친절 이야기'를 주제로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들이 왜 불친절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친절기사로부터 입장을 청취했다. 또, 운수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행중인 친절기사 선정과 버스개혁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하고 시내버스 관련여건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는 26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덕진구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로 담대한 전주, 더 전주답게 세계속으로'를 주제로 '2019 덕진구 지혜의 원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덕진구에서도 전주 특례시 지정 '공감대'

### 시, 덕진 지혜의 원탁 개최

전주시민들이 광역시가 없어 소외됐던 전북 발전을 이끌고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전주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며 전주 특례시 실현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전주시는 26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덕진구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로 담대한 전주, 더 전주답게 세계속으로!'를 주제로 '2019 덕진구 지혜의 원탁'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혜의 원탁은 김승수 전주시장이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시장비전과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전주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올해는 완산구와 덕진구로 나눠 각각 한 차례씩 진행했다.

김 시장은 이날 수도권과 비수도권 낙후지역의 격차해소와 지역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의 중심 도시인 전주의 특례시 지정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김 시장은 지난 1994년 전주가 직할시로 승격되지 못한 이후 타 지역과 벌어진 격차에 대해 설명하고 전주 특례시 지정이 전주발전을 이끌고 그간 국가예산 등 정부 지원과 정에서 한 게 묶을 받아온 전북이 두 게 묶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시장은 이어 각본 없는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한 점에 대해 답변하고 특례시 지정과 민선7기 주요현안사업, 전주발전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덕진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였다.

참석한 시민들은 또 특례시 지정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하며 특례

시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 퍼포먼스를 함께 펼치기도 했다.

시는 지난 22일 열린 완산구 지혜의 원탁과 이날 덕진구 지혜의 원탁에서 제안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단순히 전주만 잘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이다.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후손들을 위해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과 포용성장 실현을 위해서도 광역시가 없다 이유는 차별비용은 전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주의 특례시 지정이 꼭 필요한 만큼, 앞으로 전주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송효철 기자

## 예수병원 새힘 암환자

### 후원회 정기총회

예수병원 예배실에서 새힘 암환자 후원회 38차 정기총회가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예수병원 예배실에서 열린 암환자 후원회 정기총회 1부 예배에서 정선법 원목실장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파송을 받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설교 말씀을 전했다.

예수병원 권창영 병원장은 "지금까지 어려운 암환자를 도움으로써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새힘 암환자 후원회의 38년간의 노여에 감사드리며 올해도 암환자를 정성으로 섬겨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바란다" 말했다.

유영근 신임이사장(효정내과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38년 전 소외되고 외로운 암환자에게 따뜻한 손길을 펼쳐 사랑을 실천한 존경하는 선배님들을 본 받아 미약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과 방법으로 섬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히고 이어 양창열 전임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강석훈 기자

## 전주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 민·관 릴레이 간담회 개최

전주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회정책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일환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민·관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주민들이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으려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확보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송효철 기자

범죄신고 112·화재신고 119

## "섬진강 오염 유입 원천 차단"

### 임실군 등 11개 지자체, 토양정화법 변경등록 취소 성명 발표

"오염토양 반입 문제는 비단 임실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섬진강 유역 11개 지자체 모두가 하나되어 섬진강 오염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임실군 오염 토양정화법체 시설 허가 논란과 관련 섬진강 유역 11개 지자체회원으로 구성된 섬진강환경행동정의회가 임실군과 함께 대응할 것을 굳게 결의했다.

이날 섬진강환경행동정의회는 임실 치즈테마파크 지정환출에서 제37차 정기회의를 갖고 "오염토양으로부터 섬진강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며, 토양정화법 변경등록 취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행동정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광주광역시장은 강력한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처리한 삼현이엔티의 토양정화 등록을 즉각 취소할 것과 △삼현이엔티는 입고된 오염토양 350톤을 즉각 회수처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토양환경보전법의 조속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행동정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광주광역시장은 강력한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처리한 삼현이엔티의 토양정화 등록을 즉각 취소할 것과 △삼현이엔티는 입고된 오염토양 350톤을 즉각 회수처리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토양환경보전법의 조속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지역 3·1운동에 공헌이 있으나 아직 추서되지 않은 미 추서자 34명을 발굴해 국가보훈처에 추서신청, 현재 공적심사중에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지역 3·1운동에 공헌이 있으나 아직 추서되지 않은 미 추서자 34명을 발굴해 국가보훈처에 추서신청, 현재 공적심사중에 있다.

## 전북대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 1등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를 가장 잘하는 병원으로 인정받았다.

26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전국 637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4차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전북대병원은 2014년 1차부터 이번 4차 평가까지 4회 연속 모두 1등급을 받아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를 가장 잘하는 병원임을 입증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기도가 좁아지면서 공기의 흐름이 나빠지고 폐기능

이 저하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심평원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적절한 진료로 통해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평가등급이 높다는 것은 폐기능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방법 설정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북대병원은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환자비율 △입원기간확장률 △처방환자비율 등 전 항목에서 최우수 점수를 받아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강석훈 기자

##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봄학기 교육과정 설명회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박성숙)는 26일 센터 4층 강당에서 취업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봄학기 교육과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센터는 3월부터 7월까지 운영되는 이

번 봄학기 교육과정으로 총4개 과정으로 마련, 취업희망여성 57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6개 무료직업훈련과정(120명), 구직지원과정(완산구 3개 과정·45명, 덕진구 2개 과정·18명), 19개 일반과정(210명)이다. /송효철 기자